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고도 목포를 문화의 도시로

전국적으로 떠들썩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용한 목포가 말이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 등과 함께. 참으로 웃기지 않는가. 그래서 목포는 영접결에 연일 일급 뉴스거리가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을 잡기 위해. 한국당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벌인 마당극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아무튼 어떤 형태이든 목포에게는 별로 나쁠 것도 없다. 이제 갑론을박은 그만두고 양지의 문화든 음식의 문화든 보존가치를 고찰해 보자.

필자는 본래 낚시가 취미였다. 늦겨울부터 초겨울까지는 민물·바다낚시를 번갈아 다녔다. 한겨울에는 얼어버리기 때문에 특히 민물낚시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휴일만 되면 사철을 비롯해서 전국 방방곡곡의 우리 문화가 숨 쉬는 곳은 거의 다 찾아다녔다. 그때마다 아쉬운 것이 오래된 문화재의 원본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개축 또는 신축이었다. 아무리 원본에 가깝게 복원했다하더라도 본래의 모습은 아니잖은가.

조상의 손때 묻은 흔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망되고 한스러웠다. 약한 민족이었기에 수많은 외침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갖고 갈 수 있는 보물들은 약탈당했다.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불태워 버렸다. 이래저래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최소한 직접지배는 받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왕조가 일본에 1910년 8월 29일 국가를 빼앗기면서부터는 일제 36년사라는 치욕스런 새로운 피의 역사가 시작했던 것이다.

이때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반출됐겠는가.

또한 얼마나 수많은 건축물들이 불타 없어졌겠는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들의 총칼 앞에서 이 나라의 국민들은 숨 한번 제대로 못 쉬고 모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897년 10월 1일 개항한 목포는 전국 6대도시, 남한의 4대 도시 중 하나였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만큼 일제 수탈의 전진기지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동안 민초들의 고통은 어찌했겠는가. 소위 이 나라 지도자라는 기득권층 잘못으로 기름진 나주평야를 비롯해 전라도 곳곳에서 쌀 등 수많은 곡식, 면화, 소금 등이 공출되었던 것이다.

영산포에서 실려 뱃길로 목포를 거쳐 일본으로 제2차 세계대전기 한창일 때는 늦그릇, 늦수저, 늦젓

가락 등이 남아나지 않았다고 한다. 전정물지로 강탈해 갔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목포에는 중앙척식회사, 일본영사관, 일본식 절 동본원사(東本願寺)목포별원 등 수많은 일본식 건물들이 들어섰다.

이에 맞서 항일운동의 산실인 죽동교회(1985년 건축)와 정명여고 유엔아관(1920년대 초)등도 건립되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수군주둔지였던 목포진지 역사공원과 1980년대 일본인이 만든 이훈동정원 등도 있다.

가치 있는 문화재들이 수도룩한 것이다. 그래서 목포의 옛 개항장 일대를 '지붕 없는 근대역사박물관'이라 하잖은가.

이렇게나마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목포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로마 등 유럽 각국을 가보라. 조상 때문에 수많은 관광수입을 올리잖은가. 조상이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목포에도 문화재 파괴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소리들이 있다.

社說

산불 경각심 가져야 한다

전국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88건의 산불이 발생, 임야 43ha가 잿더미가 됐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실에 따르면 지난 27일 하루에만 12건의 산불이 발생해 헬기 24대가 진화에 동원됐고 임야 2.78ha가 소실됐다.

26일 5건(0.39ha), 25일 6건, 24일 7건(7.86ha), 23일 3건(0.36ha), 22일 3건, 21일 4건 등 건조특보가 이어진 최근 1주일 사이 3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달 들어서는 모두 88건의 화재가 발생해 임야 43.36ha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는 건조 특보가 지속하며 바짝 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와 대구, 울산, 부산에는 습도가 30% 미만일 때 발효되는 건조 경보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상 지역에도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강릉 경우 이달 평균습도가 34% 수준에 그치고, 하루 최저습도는 3%를 기록해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마른 날씨를 보인다. 부산과 대구 평균습도도 각각 38%, 44%에 머문다. 이달 들어 강수량도 강릉 3.6mm, 부산 1.4mm, 대구 4mm에 그치고 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내달 1일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 비상준비태세로 전환한다.

당국은 가능한 모든 산림 항공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항공기 정비와 초동 진화 태세를 유지하고, 산불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공중 진화란 모의훈련 등을 통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때 무엇보다도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산불을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불조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磨 斧 爲 針

磨 斧 爲 針

磨 斧 爲 針

▷ 뜻: 아버지를 자료(資料)로 하여 임금을 섬길지나, 아버지 섬기는 효도(孝道)로 임금을 섬겨야 함.

가정·야외 일산화탄소 중독예방 생활화 해야

겨울철이 되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각종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인한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사망, 의식불명 등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일산화탄소(CO)는 독성이 없고 냄새가 없으며 보이지 않으며 몇분 안에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 가스이며 프로판 가스, 연탄, 숯 등을 연료로 쓸 때, 엔진이 작동하는 차 안에서 잠시간 있을 때, 오래된 보일러 작동, 자동차 배기가스, 화재현장 등에서 불안전 연소시에 발생 한다. 이러한 일산화탄소(CO)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산화탄소(CO)를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며 경보기는 공기 중 가스 농도가 50ppm이 넘으면 60~90분 이내로 경보음이 울린다. 100ppm일 때는 10~40분, 300ppm이 넘어가면 3분 이내로 울린다. 실내에서 가스 기기를 사용할 경우, 상쾌한 공기가 필수이다. 환기가 불충분하면 실내의 신선한 공기가 줄어들고 불안전 연소를 불러 일으켜

일산화탄소 중독과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창문을 열어 방을 환기 시켜야 한다. 일산화탄소(CO) 중독 증세는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등 경증에서부터 머리가 멍하고 판단이 무디어지며, 머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손발의 근육이 무디어짐, 의식소실 등 중증증상과 함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환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며 구급대 도착 전 창문을 개방하고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제공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유지하며 호흡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환자는 신속히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가정이나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무안소방서 무안안전센터장 백종희

안전사고 없는 설 연휴기원하는 소방관의 제언

2019년은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이다. 돼지는 재산과 복의 상징이다. 그러나 아무리 재산과 복이 넘치더라도 행복은 순간을 사는 우리들의 행동에서 오는 것처럼 안전을 소홀히 하고 행복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설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 드리고 싶다. 우선 차량운행 시 주의할 점이다. 구급활동을 하면서 교통사고 원인을 보면 부주의, 과속, 음주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차량점검은 필수이고 특히 야간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음주운전을 하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운행 시에는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다음은 화재 예방이다. 평상시 화재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해도 설 연휴에도 예외는

아니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스밸브는 잠겼는지, 전기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문어발식 콘센트는 찢는지를 확인하고 성묘가기 전에는 가스레인지나 아궁이 등에 불이나 음식을 올려놓고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음식과 술에 대한 당부이다.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만들다 보니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무질제한 음주로 싸움이 일어나 즐거운 설 연휴를 망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현명하고 절제된 행동으로 사고 없는 설 연휴를 보내기를 기원하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일가친척, 친구들에게 안전에 대한 당부와 소화기나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발생하여 대피토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선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한선근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문화응성' (Munhwaeungseong)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our positions?). The ad promotes empathy and social harmony,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Media Development Foundation).